「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10. 1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연 : 300백만원

- 도내 기업과 경상북도·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를 통한 경북 대표 벤처펀드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포항 벤처밸리 등 관내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의회 사전의결

❍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업무의 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출연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경상북도와 포항·구미·경산·경주·안동·칠곡 등 도내 7개 기초지자체가 각각 10억 원씩 출자하고, 펜타시큐리티·아진산업·세아메카닉스 등 지역 기업 및 운용사 출자를 포함하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 공동 벤처펀드로서, 경북 소재 초격차 및 중점 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 등)의 창업 3년 이내 딥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초기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것임.

❍ 포항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10억 원(25년 2억원, 26년 3억원, 27년 3억원, 28년 2억원)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분할 출연하여 펀드에 간접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는 벤처투자 기회 확대로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우수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유망기업의 관내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포항시가 펀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재)포항테크노파크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의 출연에 대한 수익금의 회수·세입 반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